이식환자의 COVID-19 백신 접종에 대한 권고안 (2차)

대한이식학회에서는 그간 국내외 코로나 유행에 따른 백신접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간 전세계적으로 백신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학회에서는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백신접종에 대한 권고를 업데이트 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 이식환자들은 중증 COVID-19 감염증의 위험이 높으므로 COVID-19에 대한 백신을 접종 받는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합니다. 장기이식 환자에서 백신에 대한 면역원성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결과가 있으나 항체 반응의 정도와 상관없이 질병의 중증도를 낮추므로 백신 권고는 유효합니다.

- 최근 2021년 9월 말 국내 질병관리청에서는 만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도 개인의 희망 여부와 보호자의 자발적 동의를 기반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접종 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이식 환자 들 뿐 아니라, 가족과 환자를 돌보는 이들은 감염의 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접종을 받도록 권고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만 12-17세 소아청소년 대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백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명: 코미나티주(토지나메란), 업체명: 한국화이자㈜

- 일반인과 달리 만 18세 이상의 이식환자에서는 추가접종을 권고합니다. 이식환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항체 양성률이 떨어집니다. 특히, 고령의 환자, 항대사제 혹은 높은 수준의 면역억제제를 사용하는 환자에서는 항체 생성률이 낮게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위험도를 낮추고 중증으로의 진행을 막기 위해 추가접종을 권고합니다. 교차 접종의 경우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우려할 만한 보고는 없습니다.

- 이식 환자 및 같이 거주하는 가족들은 백신 접종을 하였더라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개인 방역을 유지하십시오.

- 이미 코로나에 감염되어 회복된 환자의 경우 격리가 해제되고 일상으로 복귀하면 접종을 받도록 하십시오.

- 이식을 앞두고 있는 환자는 가능한 적어도 수술 2주 전까지는 2차 접종을 마치는 것을 권고합니다. 최근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1-3개월 후에는 접종이 가능하나 개인별 면역 상황을 주치의와 상의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 백신 접종 후 정규적인 항체가 측정은 권고하지 않으며 백신 접종 전 면역억제제의 조정은 권고되지 않습니다.

- COVID-19 백신 접종과 2021-2022 시즌 계절 독감백신과의 동시 접종이 가능하며 특별히 접종 간격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2021년 10월 6일

대한이식학회